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법취업·범죄 '악용'

광주서 몽골인 절도...목포서 마약매매상 하던 베트남 대학생 검거 공부 아닌 돈벌이 탈선 잇따라...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마련 시급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비자(유학 및 어학연수)가 불법 체류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학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해 학업을 계속하는 대신, 학교를 이탈해 불법 체류하면서 일탈 행위를 저지르다 붙잡히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유학생(D-2) 및 어학연수(D-4) 비자를 받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만 2만 3631명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5년 전

인 2015년(5879명)에 견줘 4.02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만 83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1724명, 중국 1266명, 몽골이 1190명 순이었다.

유학생으로 들어온 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 일탈 행위로 잇따르고 있다.

광산경찰이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붙잡은 몽골인 A(26)씨의 경우 어학연수 비자인 D-4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했다. A씨는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뒤 출국하지도 않았고 비자를 연장해 학업을 계속하지도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아 국내에 머무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소재 K대학교에 다니다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광주로 주거지를 옮겨 일용직과 공장 등을 전전하던 중 광산구의 한 무인텔에 침입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목포해경이 최근 마약류인 대마초와 엑스터시 등 합성마약을 투약, 매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은 베트남인 B(20)씨도 지난해 3월 D-4(어학연수)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이었다.

B씨는 그러나 취업 대신, 유증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다 퇴학 통보를 받고도 출국 조치를 따르지 않고 마약 매매상으로 일하다 검거됐다.

광주·전남지역 전문대·대학교·대학원 등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5315명(광주 4731명, 전남

1584명). 법무부와 행정당국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탄희 의원은 "유학비자가 불법취업 등 범죄유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상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들어온 뒤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국 시스템이 허술한 목포·안동 등 항만을 통해 무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루트도 밀입국 통로로 알려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명진고 압수수색 채용비리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광주 명진고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교사 채용과정에서 채용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배임수재 등)로 명진고(도연학원) 행정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구체적인 압수 물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학교 회계장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진고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명진고 학교법인인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은 그러나 '별개의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교육계 안팎에서 소문이 무성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고,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밝힐 수 없지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경감사에서는 명진고 교사 해임 논란과 관련해 명진고측이 국회의원에게 사전에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동료와 회식 중 쓰러져 숨져

현지 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A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밤 11시 20분께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첫 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또 재산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이달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복한 버스
즐거운 동심**

11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 설치된 행복한 버스와 함께하는 '나만의 버스 그리기' 원화전시 작품인 모형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지자체 잘못된 행정처분 잇따라 제동...보조금 환수도 차질

담양군 보조금 반환명령·곡성군 어린이집원장 수당 관련 패소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보조금 환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어 치밀하지 못한 행정 절차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정)는 A위탁영양 유한회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담양군의 A사에 대한 9000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담양군의 '영농조직화 단체 저용저장고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저온창고(198㎡)를 신축하고 보조금 9000만원을 받았다.

담양군은 이후 '해당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A사 명의로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해 A사 이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사업자인 A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고 청문을 거쳐 20여일 뒤 '보조금 환수 통보'까지 결정했다. 담양군은 이 과정에서 기존 사전통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저장고를 일정 기간 동안 승인없이 임대, 담보제공한 점'

도 추가해 통보했다.

A사는 담양군의 환수 통지와 관련, '승인없는 임대·담보 제공'에 대한 의견 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내세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해 A사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는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 명의로 신청한 사업부지 내 저장고 신축이 불가능한 점을 담양군에 알렸는데 공무원들이 저장고 신축을 승인한데다, A사가 담양군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가 회사 자금을 투입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담양군이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 제한규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같은 재판부는 곡성군을 대상으로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기한 '시정요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곡성군은 지난해 10월, 전남도의 정기중립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원장 경력수당으로 지급한 3200여만원을 회수,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다시 입금'토록 시정요구했었다.

재판부는 "곡성군이 시정요구 전 어린이집총회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해당 시정 요구는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 나현 전 시의원 벌금형 구형

검찰이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를 받는 나현 전 광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 심리로 열린 나현 전 시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880만원의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나현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의회 시설 보좌관 급여 중 880만원을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수사 됐다. 나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처해주시다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나현 전 의원을 제명했고 광주시선거부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현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현 전 의원은 의회의 결정에 반발해 제명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제명결정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 패소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나현 전 의원은 효력 정지 신청이 한시적으로 인용되면서 지난 10월 8일까지 한 달간 의원직을 유지했다가 다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텔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3,600	2,680				골드(28)방2	3,21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B(31)방2	2,60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